

# 청년·신혼부부 안정적 지역 정착 도모 지역 의료혁신 3차 포럼 열려

## 순창군,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 선정... 320억원 투입 100호 조성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전북개발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총 320억 원(전북개발공사 160억 원·도비 80억 원 포함)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순창읍 순화리 일원에 청년·신혼부부용 반할주택 100호를 2031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인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이번 공모 선정이 지역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고 있다. 반할주택은 시세의 약 5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춘 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임대 이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초기 주거비 부담은 낮추면서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열어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착 지원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단순한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정주 여건 개선, 인구 유입 확대, 지역 활력 회복까지 동시에 겨냥한다는 점도 이번 사업의 강점이다.

이번 선정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새로운 주거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갖춰지면 지역 공동체 유지와 인구 구조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활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군은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2028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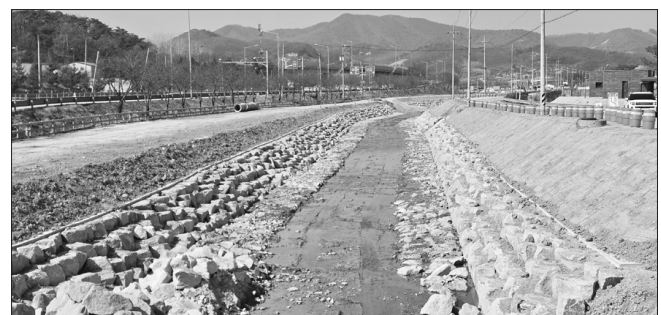
/순창=이영원 기자

## 임실군, 옛 물길 되살린다

###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 박차

임실군이 옛 물길을 되살려 수변환경을 복원하고 군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의 인공구조물(콘크리트 호안, 낙차보 등)을 생태호안과 자연형 어울로 개선

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하천 정비로 훼손된 생물 서식처를 복원하고 종적 연결성을 회복해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구간은 총 3.3km로, 1단계(임실천 합류지점~성수면 도인천교)와 2단계(성수면 도인천교~성수면 도인저 인공구조물(콘크리트 호안, 낙차보 등))를 생태호안과 자연형 어울로 개선



임실군이 옛 물길을 되살려 수변환경을 복원하고 군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남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 16년 연속 선정

남원시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3,65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남원시는 지난 2010년부터 16년 연속 공모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성인문해교육은 경제적·사회적 사

정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기초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를 비롯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해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남원시는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 어르신 대상의 기초 한글 교육을 운영하는 한편,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교육'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법



등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겪는 일상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집중하고,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도 확대 추진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서울대 의과대학 지역의료혁신센터, 협력 강화

남원시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의료혁신센터는 지난 3일 남원 스위트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연결형 지역 의료혁신(남원 디지털 헬스 실증사업)'을 주제로 제3차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권역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경식 남원시장, 서울대학교 강대희·이정표·최희정 교수, 강은경 카카오헬스케어 상무, 오진규 남원의료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기초 강연에 나선 한용재 남원시 보건소장은 시 보건건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ICT를 활용한 보건건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지역의료혁신센터 소개(이정표 교수) △스카카오파스타를 활용한 지역주민 건강관리(강은경 카카오헬스케어 상무) △디지털 기술 기반의 통합 건강관리 체계(최지영 교수) 등을 주제로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도입 방안이 다뤄졌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고령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를 고려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주목받았고, 사업의 기획부터 실행, 사후평가까지 아우르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남원시와 서울대 지역의료혁신센터, 카카오헬스케어는 '남원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데이터 구축 전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건강관리 모델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남원시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의료혁신센터는 지난 3일 남원 스위트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연결형 지역 의료혁신(남원 디지털 헬스 실증사업)'을 주제로 제3차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권역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경식 남원시장, 서울대학교 강대희·이정표·최희정 교수, 강은경 카카오헬스케어 상무, 오진규 남원의료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기초 강연에 나선 한용재 남원시 보건소장은 시 보건건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ICT를 활용한 보건건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지역의료혁신센터 소개(이정표 교수) △스카카오파스타를 활용한 지역주민 건강관리(강은경 카카오헬스케어 상무) △디지털 기술 기반의 통합 건강관리 체계(최지영 교수) 등을 주제로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도입 방안이 다뤄졌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고령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를 고려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주목받았고, 사업의 기획부터 실행, 사후평가까지 아우르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남원시와 서울대 지역의료혁신센터, 카카오헬스케어는 '남원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데이터 구축 전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건강관리 모델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남원시가 2026년 상반기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총 64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이창호 부시장은 지난 3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과장 지용구)를 방문해 현안 수요 6건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재난 안전수요 4건은 지난 1일 최경식 시장이 해당 부서에 별도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현안수요 6건 40억원, 재난안전수요 4건 24억 원으로, 문화 인프라 확충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관광 기반시설 정비, 재난 예방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직결된 과제들이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레코드테크 조성사업(10억 원) △대산면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10억 원) △식량마를 관광 우회도로 개설사업(10억 원) △지리산 고향올래 조성사업(4억 원) △남원 동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3억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3억 원) 등이 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감성 소화전 정비(10억 원) △세전배수장 긴급 기능보강(5억 원) △중요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개선(5억 원) △재난취약계층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4억 원) 등을 건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가 2026년 상반기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총 64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이창호 부시장은 지난 3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과장 지용구)를 방문해 현안 수요 6건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재난 안전수요 4건은 지난 1일 최경식 시장이 해당 부서에 별도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현안수요 6건 40억원, 재난안전수요 4건 24억 원으로, 문화 인프라 확충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관광 기반시설 정비, 재난 예방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직결된 과제들이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레코드테크 조성사업(10억 원) △대산면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10억 원) △식량마를 관광 우회도로 개설사업(10억 원) △지리산 고향올래 조성사업(4억 원) △남원 동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3억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3억 원) 등이 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감성 소화전 정비(10억 원) △세전배수장 긴급 기능보강(5억 원) △중요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개선(5억 원) △재난취약계층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4억 원) 등을 건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춘향제 교통정보 안내 기능 대폭 강화

남원시가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되는 '제96회 춘향제' 기간 동안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정보 안내 기능을 대폭 강화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앱은 축제 기간 운영되는 임시 주차장 위치와 차량 통제 구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특히 셔틀버스 노선 안내와 함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해당 서비스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 현수막과 주차장·셔틀버스 안내 홍보물 등에 QR코드를



심입해 별도의 검색 과정 없이 스마트폰 스캔만으로 남원시 교통정보 앱을 즉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군, 고령·영세농업인 대상 농작업 대행 운영

임실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고령·영세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 두둑성형, 비닐파복의 작업 대행을 오는 6월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작업 대행은 상대적으로 일손과 장비 확보가 어려운 고령영세농의 농업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군은 숙련된 인력과 전용 농기계를 투입해 현장 지원에 나서서 중이다. 신청 자격은 관내 만 70세 이상의 농업인인면서, 경작면적이 1ha 미만의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대행료는 경운, 두둑성형, 비닐파복 각 m당 30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해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소(임실읍 봉황로 371)에 방문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접수된 필자는 작업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임실=진종영 기자

### 순창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모집

순창군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스마트폰 모바일 앱과 스마트워치 등을 활용하여 보건의료원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24시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이행되기 전 단계의 건강 위험요인을 관리해 질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 대상은 만19세이상 65세 미만 순창군민 또는 순창군 소재 직장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참여자 모집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사전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최종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행정직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킁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